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원료, 원산지 표시제, TPP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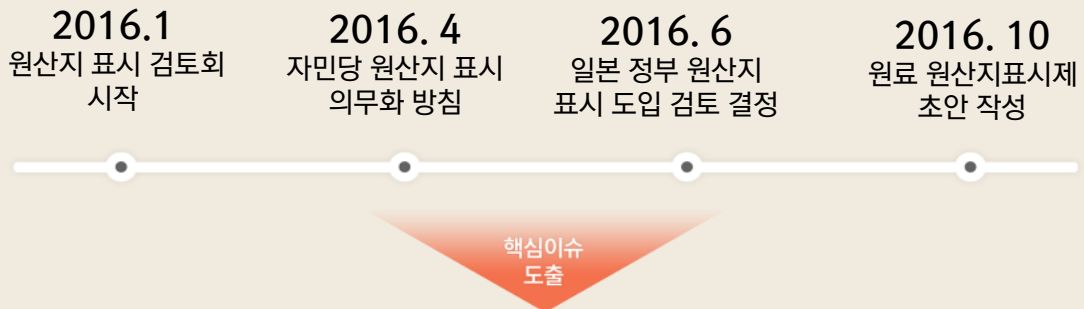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일본, 원료, 원산지 표시, TPP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일본, 원산지 표시 확대 검토 막바지”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일본, 원산지표시 제도 검토 막바지

일본 정부가 레토르트 식품이나 과자 등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의 확대를 검토하고있다. 지금까지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던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 식품에 넓히려는 것이다. 식품 지식인으로 구성되는 검토회는 이달 초 새로운 규칙의 초안을 제시했지만 "수입 또는 국산"등 명확하지 않은 표시도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인식 고조 등으로 2000 년에 시작된 가공 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처음에는 매실과 염교 절임에 국한되었지만, 현재는 장어 구이 등 4 품목과 건어물 등 22 식품군으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면 국내 생산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소비자 청은 의미를 설명한다.

표시 대상의 확대는 지금까지도 종종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포장 변경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의 반대가 강하여 보류되어 온 바 있다.

자민당의 프로젝트 팀은 올해 4 월 국산품의 소비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가공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방침을 나타냈다. 정부도 6 월 굵직한 정책에서 모든 가공 식품에 원산지 표시의 도입 검토를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농림 수산성과 소비자청은 1 월 식품 및 농업 단체 등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검토회를 시작해 지난 10월 5 일 초안을 작성한 바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삶은 팔 통조림의 경우 팔의 산지가 아닌 무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설탕이므로 표시되는 것은 설탕의 산지이다. 냉동 '타코 야키'는 문어가 아니라 밀가루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콩이 아니라 설탕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또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중간 가공 원료는 수입품 등의 경우 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가 아닌 제조 시설을 표시한다. 즉, 해외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것은 "국내 제조"로 표시될 예정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